

碩士學位論文

*Women in Love*의 생태주의적 다시읽기

指導教授 梁 永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趙 玫 殖

2001年 8月

# Women in Love의 생태주의적 다시읽기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提出者 趙 玟 殖

趙玟殖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査委員長

변종민



審査委員

홍일상



審査委員

양영수



## *Women in Love*의 생태주의적 다시읽기

趙 珉 殖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Lawrence는 “예술을 위한 예술”보다는 “인성을 위한 예술” 또는 “나 자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한 작가였다. 그의 문학작품은 예술적인 기교에서 논의할 여지가 거의 없고 인간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구도적인 사명감에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Women in Love*에서도 현대문명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새로운 삶의 각성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한 인간의 삶과 인간 본성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Women in Love* 속의 등장인물 중 Gerald는 자연과 어긋나버린 현대문명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Gerald는 자신이 자란 바탕인 현대산업문명을 추종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본능은 억누르고서 기계적, 생산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자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Gerald는 광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과 이성에 대한 그의 지배욕은 커져간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행동은 Gerald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가 없게 만들고 끝내 그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Gerald의 죽음은 현대산업문명의 퇴행에 의해 희생된 한 개인의 비극적 이야기이다.

Gerald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Birkin은 현대산업문명이 자연을 지배

---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려고 하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래서 그는 소설 속에서 자연에 따르는 삶과 인간성 회복을 주장한다. Birkin은 억눌린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고 자연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현대산업문명의 제도, 가치관 등을 거부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능적 모습의 발현을 억압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이러한 제도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여 가치 있는 삶, 창조적인 삶의 길로 들어선다.

Lawrence 소설의 주된 소재 중 하나는 이성간의 사랑이다. *Women in Love*에서는 두 쌍의 연인이 등장한다. 먼저 Gerald와 Gudrun은 서로에 대한 지배욕을 갖는다. 둘은 서로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둘은 자연적인 인간 본성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자연에 어긋나는 지배욕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 Birkin과 Ursula는 서로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둘은 현대문명사회의 제도와 틀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연의 본성, 관능적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사랑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 본성에 의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보다 더 높은 단계인 창조적인 삶의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Lawrence의 선각자적 안목은 오늘날 최대의 시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관점은 단순히 환경 친화적인 생활 개선이라는 실리적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인간의 본성 측면에서 소설을 썼다. Lawrence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 자연의 질서에 적합한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가치 있고 창조적인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II. Gerald의 산업주의와 정복적인 자연관 .....	6
III. Birkin의 생명주의와 공존적인 자연관 .....	20
IV. 공존윤리를 지향하는 사랑 추구 .....	34
V. 결 론 .....	45
참 고 문 헌 .....	50
Abstract .....	52



# I. 서 론

그동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온 산업문명에 대한 회의와 이제까지 간과해오던 자연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대되면서 생태학적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발전위주의 현대산업사회에 의해 파괴되어 가던 자연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과 그 속의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 사이의 공존 관계에 대한 재인식이 시대문제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대두하게 된 학문이 생태학이다.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생태학은, 식물이나 동물 같은 유기체가 물리적 환경과 맺고 있는 총체적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sup>1)</sup> 즉, 유기체적인 생물계와 그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구조 사이의 관계가 생태학의 연구 대상이며, 그 중에서 인간도 자연계의 일부라는 관념하에 인간과 자연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간생태학이 일차적인 관심대상이다. 이러한 생태학은 기존의 과학들과 달리 기존의 사고와 인식체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과학들이 객관적 사실의 발견만을 추구한 반면 생태학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생태학은 모름지기 선진 개발 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나라들은 물론이고 현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지속적 진보와 발전에 깊은

---

1)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서울: 민음사, 1998), p. 25.

회의를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생태학은 서구 근대 문명을 그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생태학적 관심사가 시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문학작품 속에도 주요 주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생태주의 문학이 근대에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학은 현대문명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다. 생태학의 기본정신, 즉 생태학적 관심을 문학에 도입하는 문학생태학이 최근에 급속히 부각되고 있음은 문학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의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학과 문학의 만남은 일반 과학과 문학의 개념처럼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학 생태학은 생물학의 분과 학문인 생태학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생태학 이론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해서 생태학 그 자체보다는 생태학의 기본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 생태학의 기본 정신을 생태주의라는 말로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므로 문학생태학은 생태학보다는 오히려 생태주의를 표현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문학작품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연관된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의 충실한 인간의 삶과 인간본성에 대한 진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발견하려는 생태주의적 문제의식을 갖고서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본래적인 인간성의 진실을 탐구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D. H. Lawrence(1885-1930)의 *Women in Love*는 비록 집필 당시에

2) *Ibid.*, p. 26.

3) *Ibid.*, p. 33.

는 현재와 같은 의미의 생태학적 문제의식으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삶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Lawrence문학의 주요 테마들 중에 하나이며 이 작품에 나타난 남녀간의 애정모랄 추구과정은 우주와 자연 속에서의 생명원리나 생태질서 문제의 철학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Lawrence는 “예술을 위한 예술”보다 “인생을 위한 예술”을 택한 작가였다. *Women in Love*에서 Ursula가 “예술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관련을 맺을 때에만 진실”<sup>4)</sup>이라고 말했듯이, Lawrence에게 있어 예술작품이란 “인간과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를 생생한 순간 속에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었고, 예술작품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인간의 진정한 삶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Lawrence가 살던 시대에도 산업의 발달에 의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러한 문제가 문학작품의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는 예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awrence에게는 선각자 적인 문명비판의 안목이 있었다. 당시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풍토 속에서 그는 의식적이지는 않았지만 생태학적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질서문제에 눈을 돌렸다. Lawrence에게 있어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고 인간의 존재 유·무가 대자연의 위대함과 존엄함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이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인간사회의 질서, 가치관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의 질서

---

4) D. H. Lawrence, *Women in Love*, with Essays in criticism (서울: 신아사, 1982), p. 670. 앞으로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하며 인용문 말미의 괄호 안에 페이지를 표시키로 함.

5) D. H. Lawrence, “Morality and the Novel”,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 A. H. English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p. 175.



및 인간의 본래적인 특성에 충실히 따르는 삶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본래의 생명력을 배격한 채 발전위주의 경쟁개념과 사회질서를 우선하는 현대산업사회는 Lawrence의 이러한 생각들과 전면 상치된다. 그는 자연질서의 일부로서의 인간 본성에 충실하고 본래적인 자아를 견지하는 것이 인간존재의 참다운 본령이라고 지적한다.

The living self has one purpose only: to come into its own fullness of being, . . . Man's nature is balanced between spontaneous creativity and mechanical-material activity. Spontaneous being is subject to all the laws of the mechanical-physical world. Man has almost half his nature in the material world. His spontaneous nature just takes precedence. And all our efforts in all our life must be to preserve the soul free and spontaneous.<sup>6)</sup>

물론 Lawrence도 자연환경과 생태질서문제를 의식적으로 문학작품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인 관심사는 현대기계문명과 산업사회의 기본방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런 문명비판적인 주제를 오늘날 관점에서는 생태학적인 맥락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Women in Love*의 주인공들 성격에는 Lawrence가 처한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현대산업문명의 그릇된 가치관을 추종하다 파멸하는 인물과, 그와는 반대로 왜곡된 사회현실을 거부하고 인간본성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구성이 되고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유형의 인물들을 설정하여 Lawrence 자신의 생각을 전

---

6) D. H. Lawrence, "Democracy",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 A. H. English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p. 93.

달하고 또 현대산업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Lawrence 연구자들은 주로 독특한 Lawrence의 애정관이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 것이 사실이었다. Lawrence가 자연질서에 따르는 삶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시대의 주요과제로 등장한 생태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작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람들 모두가 전 우주의 질서 속에 인간의 위치를 깨닫고 인간의 본성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Birkin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구도자를 자처하던 Lawrence의 분신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위주로 각각의 삶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Gerald의 산업주의와 정복적인 자연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 작품들 속에서 자연 또는 생태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오고있다. 하지만 작가들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자연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Alexander Pope 시 절의 고전문학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였다. 시간이 흘러 낭만주의에 와서 William Wordsworth등이 노래한 자연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 숲, 물 등 문명이전 상태로서의 자연이었다.

Lawrence는 이들과는 다른 그의 독특한 자연관을 갖고 있었다. 그의 자연관 속에서 자연은 숲이나 강과 같은 실제의 자연이나 사고 능력으로서 이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연의 생태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본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Lawrence는 자연의 생태질서 속에서 인간 우위를 부정한다. 우주적 질서인 자연 속에서 인간은 한 부분일 뿐이요 모든 자연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Lawrence에게 있어서 사회 문제는 항상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Lawrence에게 현대산업사회의 발달은 개인의 활력이나 자연스러운 본능의 발현을 억압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왔고, 이는 본래적인 자연상태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 속에 자신의 믿음과 현대산업사회의 억압적 메카니즘을 각각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Women in Love*에서 Lawrence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자신의 분신으로 Birkin을 등장시킨다. 반면 자신의 신념과 대조가 되면서 현대산업사회를 옹호할 수 있는 인물로 Gerald를 등장시킨다. 즉, Gerald는 당대 현대산업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 Aidan Burns는 Gerald에게 있어 문명사회는 단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그의 존재 조건이었다고 이야기한다.

Gerald Crich is a different embodiment of the same dualism. He is first shown to us at Shortlands as an advocate of all those conventions which are, for him, not just the symbols but the very conditions of civilized life.<sup>7)</sup>

Lawrence는 소설 내에서 인간의 본성, 자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Gerald란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가 파멸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의 발전우선주의와 그에 알맞은 획일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산업주의, 기능주의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다.

Gerald는 작품 속에서 현대문명을 대표하며, 결국 자연을 지배하려는 현대문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Lawrence의 이상을 정열적으로 추구하고, 육체적인 지성과 승화된 에너지를 표출하는 Birkin이 매우 마른 반면 그와 달리 Gerald는 보다 딱 벌어진 체구를 가졌다. 이는 겉으로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화려하게 포장되어 가는 현대문명의 모습을 Gerald에 투영시킨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외모는 겉으로는 매우 단단하고 유연하다. 그리고 그의 체형은 매우 아름다우면서 완전하게 보인다.

So the two men began to struggle together. They were very dissimilar . Birkin was tall and narrow, his bones were very thin and fine. Gerald was much heavier and more plastic. His

---

7) Aidan Burns, *Nature and Culture in D. H. Lawrence* (Totowa: Barnes & Noble Books, 1980), P. 77.

bones were strong and round, his limbs were rounded, all his contours were beautifully and fully moulded. (p. 427)

이러한 그의 아름답고 완전한 외모는 뭔가 결함을 갖고 있다. 즉,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과 어긋난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본질에서 이탈해 가는 문명이 겉으로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인간본연의 모습과 자아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균형적인 모습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Gerald의 불균형적인 모습은 Gudrun의 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Gudrun의 눈에 비친 Gerald의 첫 모습은 옷을 잘 차려입고 검게 그을린, 그리고 보통 이상의 키의 훌륭한 청년의 모습이다. 그러나 웬지 모르게 주변을 경계의 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Gerald의 잘 차려진 외모는 개발의 물결 속에 겉으로 성장하고, 치장된 현대문명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국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신의 모태로서의 자연과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Her son was of a fair, sun-tanned type, rather above middle hight, well-made, and almost exaggeratedly well-dressed. But about him also was the strange, guarded look, the unconscious glisten, as if he did not belong to the same creation as the people about him. (pp. 45-46)

이렇듯이 Birkin과 달리 모든 것을 갖춘 듯 하면서도 불안정한 Gerald의 모습은 문명발전 위주의 현대산업사회에서 인간모습이 인간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불균형적인 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

는 실례이다. 매우 이지적이면서도 훌륭한 외모를 가진 Gerald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주변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안정되지 못한 것은 본래의 인간 자아, 즉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본모습이 문명화된 모습아래 억눌려 있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Gerald의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Birkin과 런던으로 가는 길에 플랫폼에서 만난 Gerald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Gerald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웬지 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습성을 보여준다. 이토록 웬지 모를 두 가지 의식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Gerald의 모습은 문명의 허울 속에 억눌려 있는 진정한 인간의 자아의식이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From time to time, in a manner characteristic of him, Gerald lifted his head and looked around. Even though he was reading the newspaper closely, he must keep a watchful eye on his external surroundings. There seemed to be a dual consciousness running in him. (p. 105)

Gerald는 외모 뿐만 아니라 가치관, 생각에서도 Birkin과는 대조된다. 그는 작품 속에서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질서와 통제를 원한다. 즉, 문명화된 질서와 통제만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진실인 것이다.

At one level of his consciousness, therefore, Gerald's desire for order and control, like Hermione's espousal of culture, is strong. We see it in his treatment of the Arab mare at the railway crossing.<sup>8)</sup>

---

8) *Ibid.*, p. 77.

Gerald는 평등보다 분업사회 하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의 자율적인 모습,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개인의 존재를 사회, 문명을 위한 하나의 기계장치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며, 또 그러할 때 인간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Gerald의 생각은 Joshua경과 Birkin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오직 생산적인 노동만이 인간을 결합시키므로 사회라는 기계장치 속에서 노동 없이는 모두가 고립되고 제멋대로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문명 속에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There had been some discussion, on the whole quite intellectual and artificial, about a new state, a new state, a new world of man. Supposing this old social state were broken and destroyed, then, out of the chaos, what then? The great social idea, said Sir Joshua, was the social equality of man. No, said Gerald, the idea was, that every man was fit for his own little bit of a task--let him do that, and then please himself. The unifying principle was the work in hand. Only work, the business of production, held men together. It was mechanical, but then society was a mechanism. Apart from work they were isolated, free to do as they liked. (p. 180)

Gerald의 관점으로 본다면 광부들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술적 가치 이외의 존재론적 의미가 없다. Gerald에게는 오직 현대문명의 특징인 산업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이다. Gerald의 이런 모습은 17장 “The Industrial Magnate”에서 Crich家를 통해서 묘사된 자본주의 형성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Gerald의 생각은 Birkin과 함께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의 대화에서도 등장한다. Birkin은 자기 중심의 삶, 자신의 인간본성에 알

맞은 삶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자연으로 돌아간 삶,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Gerald는 목적 있는 삶, 무엇인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삶, 문명 사회 속에서 질서에 부합되어 존재하고 있는 삶을 자신의 존재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의 틀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명체제 안에 알맞은 인간의 모습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What do I live for?’ he repeated. ‘I suppose I live to work, to produce something, in so far as I am a purposive being. Apart from that, I live because I am living.’ (p. 109)

한층 더 나가 Gerald는 사회의 사악한 영향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인물이 된다. 그는 고용인들을 ‘순수한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능률적인 생산이 지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인간적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를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생명체의 조화를 향한 내재적 성장욕구는 깨지고 조직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Gerald의 이러한 가치관은 그가 탄광을 물려받았을 때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탄광을 물려받은 후 그에게 구체적이고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예전의 탄광은 비록 사나운 모습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삶과 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Gerald가 바꾸어 놓았다. 탄광의 모든 체제를 효율적으로 기계화시켜서 더 이상 광부들의 인간다운 모습은 필요 없고 단지 기계의 연장과 같은 기능만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다소 반발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완벽한 기계화에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어 일종의 만족감까지 얻는다. 하지



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본성, 인간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화로 인하여 Gerald 자신도 더 이상 탄광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불균형의 상태가 심각해지던 Gerald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맞물리면서 정신적 공황상태가 커지고, 그는 그 혼돈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Gudrun을 찾아가게 된다.

There was a new world, a new order, strict, terrible, inhuman, but satisfying in its very destrtuctiveness. The men were satisfied to belong to the great and wonderful machine, even while it destroyed them. It was what they wanted. It was the highest that man had produced, the most wonderful and superhuman. They were exalted by belonging to this great and superhuman system which was beyond feeling or reason, something really godlike. Their hearts died with-in them, but their souls were satisfied. (p. 370)

기능화·기계화된 인간상은 문명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정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Lawrence가 주장하고 있는 자연, 즉 인간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혼돈일 뿐이다. 즉, 광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산업화는 거대한 혼돈이라고 Lawrence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부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가 차츰 안주하게 되는 것은 존재양식에 따라 인간의 의식이 결정되는 현대문명의 특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점점 혼돈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Lawrence는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의 모습,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보면 시끄러우면서도 지저분한 탄광의 모습이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연의 질서에 알맞은 안정된 모습이다. 현대산업사회에 의해 혼돈에 빠져드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Aidan Burns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The substitution of the mechanical for the organic principle is a new form of the dichotomy between the chosen self and the natural self. What is happening in the mines is that human nature itself is being redefined by a dominant intellect allied to the means of production which belongs to an industrialized society. And it brings into focus the modern doubt as to whether it is still possible to maintain an idea of human nature at all.<sup>9)</sup>

Gerald는 현대산업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추진력 있고, 유능한 인물이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강인한 인물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암말이 철도 건널목에서 겁을 먹지만 기차 가까이에 계속 서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그는 이런 의지 일변도의 행동이 사회적 혼란을 막고 질서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Lawrence가 말하는 자연의 상태, 불변하는 인간본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분명 혼돈의 상태이다.

이토록 Gerald 의지로서 현대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를 구현한다. 하지만 Lawrence는 인간다운 상태, 창조적인 생명력은 갈등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갈등상태가 깨지면 수라장이 되고 창조적인 삶은 깨어진다고 했다. 인간 본성을 따라 각 자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갈등이 창조적인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Gerald는 이러한 모든 것을 문명화를 구실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 질서를 부여한다. 바로 Gerald의 외적 생활에서 보이는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생활의 질서는 개인의 사적생활에서 공허와 공

---

9) Burns, p. 78.

포를 만들어 낸다. 즉, 인간본성의 상태에서 보았을 때는 혼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 Freeman도 “자신의 성격을 사회질서에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규정하는 병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못한다”<sup>10)</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Gerald가 저녁에 할 일 없이 홀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겁에 질려 일어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어 겁이 난 것이다.

And once or twice lately, when he was alone in the evening and had nothing to do, he had suddenly stood up in terror, not knowing what he was. (p. 372)

인간본성을 억누르는 질서를 자신의 생활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인간 본연의 조화로운 상태를 깨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함에 쫓기게 되는 것이다.

Gerald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고독과 절망적인 욕구 속에 빠져들게 된다. 광산을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사회의 부유계층을 형성한 그의 아버지는 분명 Gerald가 생각한 사회질서에 알맞은 인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Gerald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남편의 얼굴이 마치 삶이 지나가지 않은 사람처럼 아름답다고 하며 절대로 삶을 마감할 때 남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한다.

---

10) Mary Freeman, *D. H. Lawrence: A Basic Study of His Ideas* (New York: Grosset & Dunlap, 1955), p. 60-61.

'You are dead.' She stood for some minutes in silence, looking down. 'Beautiful.' she asserted, 'beautiful as if life had never touched you-never touched you.- God send I look different.-I hope I shall look my years, when I am dead. . . . 'None of you look like this, when you are dead! Don't let it happen again.' . . . 'Blame me, blame me if you like, that he lies there like a lad in his teens, with his first beard on his face. Blame me if you like. But you none of you know.' She was silent in intense silence. Then there came, in a low, tense voice: 'If I thought that the children I bore would lie looking like that in death, I'd strangle them when they were infants, yes-' (pp. 524-525)

Gerald의 아버지 역시 현대산업사회에 의해 길들여지고 그 사회의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Gerald의 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이 아름답고 삶이 거쳐가지 않은 것 같다고 한 말은 그의 삶이 인간 본성을 억누르는 사회 질서 속에서만 살아 왔다는 의미이다. 즉 그에게 삶이 거쳐가지 않았다는 말은 진정한 자연 상태, 조화상태의 인간 본성에 부합되는 삶이 아닌 사회에서 부여한 질서에만 의한 공허, 혼돈의 삶을 살아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만약 자식들이 아버지와 그렇게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차라리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뒤쫓고, 또한 자신도 공허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 Gerald에게 어머니의 이런 말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준다. 그래서 Gerald는 혼돈과 절망적 상태를 견디지 못하여 방황을 하게 되고 그 방황을 매듭짓기 위해 Gudrun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여기서 Gerald의 이기적인 면을 볼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인간본성에 의한 사랑이 아닌 일종의 지배욕과 자신의 혼돈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허무와 절망을 덜기 위해 Gudrun을 찾아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Gudrun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빠져 나올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된 것이다.

He had come for vindication. She let him hold her in his arms, clasp her close against him. He found in her an infinite relief. Into her he poured all his pent-up darkness and corrosive death, and he was whole again. It was wonderful, marvellous, it was a miracle. This was the ever-recurrent miracle of his life, at the knowledge of which he was lost in an ecstasy of relief and wonder. And she, subject, received him as a vessel filled with his bitter potion of death. She had no power at this crisis to resist. The terrible frictional violence of death filled her, and she received it in an ecstasy of subjection in throes of acute, violent sensation. (pp. 539-540)



Gerald는 Gudrun에게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Gudrun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즉, Gerald는 인간본성을 억누르고 문명사회에 맞춰 살아오면서 느끼는 공허함을 다른 이성을 지배함으로써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는 반면, Gudrun은 공포 속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녀도 자연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 문명사회의 질서에 의해 무너져 가는 자아를 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가온 Gerald에게서 뭔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날 밤의 체험에서 Gerald는 만족하지만 Gudrun은 자신의 가슴속의 꽃봉오리를 그가 찢어 발갸다고 생각한다. 둘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Gerald는 처음부터 자신의 본성에 따라 상대방을 원한게 아닌, 일종의 지배욕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이렇게 애정이 없는 측면에 대해서 Leavi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is love is desperate need and utter dependence, and these make him a deadly oppression to her. Her love for him takes on more and more of malice. The sense of his dependence, and the knowledge that there is no dominance to be achieved that will ensure his safety, makes him hate her.<sup>11)</sup>

Gerald는 그 후 자신의 혼돈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Gudrun에게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Gudrun은 인간 본성이 아닌 지배욕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Gerald에게 더욱 실망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본성에 의해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녀 자신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She lay perfectly still, with a still, child-like face and dark eyes, looking at him. She was lost, fallen right away. 'I shall always love you,' he said, looking at her. But she did not hear. She lay, looking at him as at something she could never understand, never " as a child looks at a grownup person, without hope of understanding, only submitting. (p. 625)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Gerald와 Gudrun의 사이에 Loerke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그 둘 사이의 공허감을 더욱 크게 만든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는 문명사회의 질서, 가치관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인간본성을 무시한 Gerald 와 Gudrun 사이에는 더 이상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때 등장한 Loerke는 현대산업사회의 전반적인 외적타락상과 결부된 내적 측면의 타락을 나타낸다. 그리고 비록 현대산업사회의 가치를 반영·표현하고 있지만 Loerke는 예술지상주

---

11) F. R. Leavis, *D. H. Lawrence: Novelis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1), p. 198.

의의 Gudrun과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Gudrun은 Gerald에게 반발감을 느꼈다. Gudrun은 Gerald에게 그의 매력 이었던 강력한 지배의지와 추진력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더욱이 현대 산업사회의 질서 속에 사로잡힌 Gerald에게서는 인간의 본능, 관능을 느낄 수 없었다. 반면 Loerke에게서는 어느 정도의 욕구해소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Gudrun과 Gerald는 더 이상 관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둘은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Gudrun과의 이별은 Gerald에게 있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현대산업사회의 질서 속에서 공허함과 혼돈을 느낀 Gerald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 Gudrun이 그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억눌린 인간본성 회복을 위한 탈출구였던 Gudrun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절망이자 회복하기 어려운 끝을 의미했다.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Gudrun을 지배하고 싶은 생각에 Tyrol 설원에서 Gudrun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Loerke가 만류할 때 Gerald는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완전한 자신의 분해를 느끼게 된 Gerald는 결국 눈 덮인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산 속으로 들어간 그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Gerald는 자신이 속한 현대산업사회에 충실하였고 그 질서 속에서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인간본성이 살아있는 자연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공허감과 혼돈에 빠지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게 된다. 그 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도피처로 여겼던 Gudrun과의 불완전한 사랑과 그 결말,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Gerald로 하여금 삶의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다. Gerald는 전형적인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 Aidan Burns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Gerald is punished when he disregards that law of creation of which Birkin spoke. He would become God himself, creation his own nature and the natures of the men who work for him; and this is hubris as the Greeks understood it.<sup>12)</sup>

Gerald는 자연, 인간본성에 대한 억눌림으로 인해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족의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산업사회의 가치관을 맹신 맹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맹종이 결국 그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Pritchard는 Gerald는 문명화의 축도이었고 그의 죽음은 문명화의 죽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erald is the tragic hero of 'Women in Love', the epitome of his civilization, torn apart and destroyed by unrecognised contradictions within, and his death is the death of his civilization.<sup>13)</sup>

Lawrence는 현대산업사회의 화려한 걸모습에 억눌리는 가운데 자연과 인간본성이 발현되지 못한 인간의 삶을 자기파멸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인간본성을 무시한 채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명의 질서에 맹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문명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파괴되어 갈 수 있는지를 Gerald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12) Burns, p. 99.

13) R. E. Pritchard, *D. H. Lawrence: Body of Darknes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1971), p. 105.



### Ⅲ. Birkin의 생명주의와 공존적인 자연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erald는 현대산업사회의 병폐를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상실되어 가는 인간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Birkin은 우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자아의 정체성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인간본성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작품 속의 Birkin은 Lawrence 자신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Birkin은 작품을 통해 당대 현대산업사회를 끊임 없이 비판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억눌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삶을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맹목적인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사회의 틀 안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억눌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어버린 삶을 되돌아봄으로서 무의미한 소모로 차있는 삶을 벗어나 인간성 회복의 길과 인간 본성이 살아 있는 창조적 삶의 길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The problem Birkin wrestle with throughout the novel is: what must the individual do to be saved when he finds himself living in an age of renewed chaos, of dissolution? Does he go with the current, or does he fight against it.<sup>14)</sup>

Lawrence는 자신의 생각을 *Women in Love*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모델로 Birkin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 Lawrence는 16세 때 폐렴으로 인해 그가 일하던 의료기구 제작회사의 서기자리를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허약해서 군대 신체검사에서도 세 번씩이나 부적격 판정을

---

14) Keith Sagar, *The Art of D. H. Law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78.

받았다. Lawrence는 작품 속에 현실 속에서 강인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Birkin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게 된다. 즉 Birkin은 Lawrence의 사상과 외모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Birkin was as thin as Mr Crich, pale and ill-looking. His figure was narrow but nicely made. (p. 55)

Gerald가 단단하고 훌륭한 외모로 현대산업사회의 걸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Birkin은 육체적인 지성, 승화된 에너지를 표출한다. 즉, 몸은 말랐지만 진리를 갈구하면서 인간관계속에서 인간본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Lawrence의 생각을 추구한다. 그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현대산업사회 속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틀 안에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Gerald와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결혼하는 장소에서 서로를 보고 뛰어간 Laura 와 Lupton을 보고 Gerald는 비난을 한다. Gerald는 그것이 문명사회의 개념상 전통적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Birkin은 이에 대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작품과 같이 훌륭한 일이라고 한다. Birkin의 눈에는 Laura와 Lupton의 행동이 현대산업사회의 억압을 벗어난 인간본성에 의한 행동,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비춰진 것이다.

'But what do you mean by being himself?' said Gerald. 'Is that an aphorism or a cliché?' 'I mean just doing what you want to do. I think it was perfect good form in Laura to bolt from Lupton to the church door. It was almost a masterpiece in good

form. It's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act spontaneously on one's impulses—and it's the only really gentlemanly thing to do—provided you're fit to do it.' (pp. 74-75)

Birkin은 자연적인 삶, 즉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Laura 와 Lupton의 행동은 그러한 그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본성에 충실한 행동인 것이다. Birkin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현대산업사회의 특정한 질서와 가치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행동, 삶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만 좋아한다.(And they only like to do the collective things.)” (p. 75)는 말을 하며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영혼, 즉 인간본성에 따른 자아의 모습을 정의함에 있어 개개인의 개성과 단체 속에 묻혀버리지 않는 개인을 중요시한다. 그런 그의 생각은 Hermione과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Hermione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영혼에 있어 평등하고 그러한 정신 아래 모두가 하나이자, 형제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Birkin은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 영혼은 각 개인의 정신세계와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인간이 두 개의 눈, 하나의 코 등 육체적으로는 평등한, 같은 숫자의 이목구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다는 형제에는 우유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기본적 차원에서 시작될 뿐이지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인간 개개인이 모두 각자 다른 정신 세계를 갖고 있고 자신의 인간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의 질서 속에 묻혀버리지 않는 개인의 자아, 인간본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Every man has hunger and thirst, two eyes, one nose and two

legs. We're all the same in point of number. But spiritually, there is pure difference and neither equality nor inequality counts. It is upon these two bits of knowledge that you must found a state. Your democracy is an absolute lie-your brotherhood of man is a pure falsity, if you apply it further than the mathematical abstraction. We all drank milk first, we all eat bread and meat, we all want to ride in motor-cars-therein lie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brotherhood of man. But no equality. (pp. 181-182)


Birkin이 갈망하는 것은 인간이 획일성에서 벗어나 인간본성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Birkin은 Gerald와의 대화에서 'First person singular is enough for me' (p. 109) 라고 말을 한다. 그는 여기에서 'singleness'라는 말로 '나'의 개념을 표현한다. 여기서 '일인칭 단수'는 협의의 이기적인 '나'라는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일인칭 단수' 즉 '나'는 현대산업사회 가치 체계 속에서 억눌린 자발적 주체인 '나', 인간 본성에 충실한 '나'인 것이다. 즉, 여기서에서 언급한 '나'의 개념은 현대산업사회의 이름 아래 행하여지는 대중의 강요와 억압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Birkin은 Gerald 같이 유능한 산업 사회의 생산·관리자가 기계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Birkin이 문제시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산성 향상과 그것을 위한 능률 극대화라는 원칙 속에서 일체의 기술외적인 가치를 도외시하는 Gerald의 가치관이다.

'Can you see,' said Birkin, ' that to help my neighbour to eat is no more than eating myself. "I eat, thou eat, he eats, we eat, you eat, they eat," and what then? why should very man decline the whole verb. First singular is enough for me.' (p. 109)

Birkin이 걱정하는 것은 사회 집단이, 그러한 제도의 위력에 현혹되어 인간본성이 쇠멸되어 가는데도, 인위적인 문명사회의 질서가 완벽히 구현되어 현대사회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 Birkin은 이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혼자임(singleness)을 고집한다. 즉, 그는 Gerald가 이야기하는 문명사회 집단의 개념과 행위가 인간의 본성, 개성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체의 억압적 행위는 빛나간 인성의 욕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며 일, 조직체, 사랑, 결혼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대문명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Birkin의 모습은 Hermione과의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성만을 신봉하는 Hermione이 Birkin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움과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지성주의의 폐단으로 보였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he always felt vulnerable, vulnerable, there was always a secret chink in her armour. She did not know herself what it was. It was a lack of robust self, she had not natural sufficiency, there was a terrible void, a lack, a deficiency of being within her. (p. 49)

Birkin이 Hermione에게 거리감을 두려는 이유는 그녀가 극단적으로 지식제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Birkin의 눈에 인간의 본성보다 인간과 현대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을 맹종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Hermione이 갖고 있는 지식제일주의 역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자연적인 삶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Gerald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Gerald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 본성을 억누르는 삶은 그녀를 파멸을 길로 이끌게 된다.

She(Hermione) must know; her will is not her instrument, a power by which she commands: she is under its compulsion, the slave of a malign automatism that is inimical to life in herself as in Birkin. To know is to possess, and to possess is to destroy; it is a self-defeating process.<sup>15)</sup>

Lawrence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산업사회가 자연, 즉 인간본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명의 해체, 탈 문명화가 우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인간본성의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Lawrence의 생명관은 반문명적 자연회귀주의적인 경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은 자연을 파괴하고 삶의 본래적인 기쁨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 . . Lawrence가 반문명적인 입장을 지니게 된 것은 현대의 산업주의적이고 과학만능적인 사회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억압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한다는 직접적인 문명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sup>16)</sup>

Lawrence를 대변하는 Birkin에게 있어서도 파멸은 필요 불가결한 단계로, 삶의 주기의 일부로 다가온 것이다. 또한 Birkin은 현대기계문명이 이미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 낡아버린 질서를 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낡은 사회 질서가 인간의 가치있는 삶의 창조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문명을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의 질서에 따른 창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I think the people who say they want a new religion are the last

---

15) Leavis, pp. 225-226.

16) 양영수,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7), pp. 98-99.

to accept anything new. They want novelty right enough. But to stare straight at this life that we've brought upon ourselves, and reject it, absolutely smash up the old idols of themselves, that they'll never do. You've got very badly to want to get rid of the old, before anything new will appear -even in the self.' (p. 107)

*Women in Love* 속에서 Birkin은 인간문명에 대한 뿌리깊은 절망, 환멸을 이야기하고 있다. Birkin이 현대문명에 대해 절망과 환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In the Train” 나타난 Gerald와의 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기차 안에서 읽는 신문의 내용 중 ‘현실은 모순이며 이 사회에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생활태도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Gerald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필요 없다고 일축한다. 하지만 Birkin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현대 산업사회의 가치체계를 바꾸고 인간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We are such dreary liars. Our idea is to lie to ourselves. We have an ideal of a perfect world, clean and straight and sufficient. So we cover the earth with foulness; life is a blotch of labour, like insects scurrying in filth, so that your collier can have a pianoforte in his parlour, . . . It is very dreary. . . . I would have nothing at all. People only do what they want to do- and what they are capable of doing. If they were capable of anything else, there would be something else. (p. 108)

Birkin은 가끔씩 극단적으로 현대문명을 부정한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문명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인간문명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Birkin은 현실 속의 인간생활이 갖는 무의미함을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알맞은 창조적인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윌리워터(Willey Water) 호수가에서 Ursula를 만나서 그녀에게 이러한 구습에 집착하는 현실세계는 더 이상 진실을 소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을 보편화하므로 차라리 파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극단적인 현실부정의 입장을 표명한다.

Lawrence는 이 글을 쓰던 시기의 영국을 파멸로 치닫는 사회로 보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쳐서 급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영국,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버린 런던, 이 모든 것들이 Birkin에게 있어서는 인간성 파괴의 길로 치닫는 행보로 보였으며 그 때문에 현대문명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이 환멸감을 주었던 것이다. Birkin이 이러한 영국을 비난하는 소리는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영국을 거대한 허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민들이 모두 없어져야 진정한 희망이 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세상의 인간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에는 그들만의 특성이 사라지고 소멸만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즉, 당시 현대산업사회 발달의 대표자격인 영국에서 인간본성이 말살되고, 전반적인 영국사회가 획일화되면서 진정한 영국인의 본성이 파괴되어버린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현대산업사회가 화려한 겉모습, 허상을 가졌지만 진정 삶에 중요한 인간본성, 개인의 창조성 등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ell -what else is in front of them, but disappearance? - They've got to disappear from their own special brand of Englishness, anyhow.' . . . 'Any hope of England's becoming real? God knows. It's a great actual unreality now, an



aggregation into unreality. - It might be real, if there were no Englishmen.' (pp. 616-618)

Birkin은 이러한 현대산업사회에 환멸과 염증을 느끼고 자연의 일부로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집단의 인위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간본성에 충실하고 싶은 것이다. 그의 이러한 욕망은 Hermione과 Breadalby에서 논쟁을 벌인 후 장면에서 살피 볼 수 있다. 그는 Hermione과 언쟁을 벌인다. 하지만 자신이 Hermione에게 상처를 줬음을 상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Hermione의 방으로 찾아가서 그녀와 등진 긴 의자에 앉는다. 그 때 Hermione이 동그란 목주로 Birkin을 내리 친다. Birkin은 받아치지 않고 도망을 친다. Hermione에게서 도망쳐 나온 Birkin은 전나무 숲을 헤매게 된다. 그러다가 그는 초목들 하나 하나를 온 몸으로 접촉하고 느껴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앵초 속에 앉아 발을 움직이며 몸을 묻어 버린다. 자연속의 일원인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일체가 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 장면은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억압되었던 자신의 본성을 자연 속에서 풀어놓음으로서 해방감과 동시에 진정한 인간본성의 회복을 느끼게 되는, 즉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식물과 자신 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빈틈 없는 정신보다 자신의 광기의 세계를 택하게 된 것이다. 즉, 그는 현대산업사회의 질서와 억압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인간본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는 행복의 절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Lawrence가 바라는 인간본능, 소멸되어 가던 인간적인 삶의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절정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때 Hermione 역시 그동안 자신이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본성이 살아나는 순간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사랑하던 Birkin을 목주로 내리치게 된다. Birkin에 대한 지배와 소유욕이 좌절되고 또한 자신의 인간 본성을 억누르면서까지 지켜오던 지식의 우월성이 그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Birkin에게 관철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자 Birkin을 자신을 파괴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그를 부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Gerald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억눌린 인간본성의 위협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Hermione이다. Gerald는 현대산업사회의 획일화 위협성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면 Hermione은 지성제일주의의 우월성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둘 다 자연 속의 인간 본성을 억누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Yet Hermione is considerably more than a vehicle for Lawrentian dogma: she is crucial to the plot, for she presents an obstacle which must be understood and surmounted as a condition for the only successful coupling in the book; and her peculiar position in Lawrence's larger patterns of negation gives her certain important insights into the difficulties of other characters.<sup>17)</sup>

그러나 Birkin을 내리칠 때 Hermione은 표현할 수 없는 절정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 순간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오직 그녀에게는 자신의 황홀한 절정의 성취만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였다. 즉, 이 장면은 죽어버린 사회의 지식 속에서 억눌려오던 Hermione이 자신의 인간본성에 충실하면서 그 절정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

17) Stephen J. Miko. *Toward Women in Love: The Emergence of a Lawrentian Aesthetic*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1), p. 220.

Nevertheless, down went his head on the table on which his book lay, the stone slid aside and over his ear, it was one convulsion of pure bliss for her, lit up by the crushed pain of her fingers. But it was not somehow complete. She lifted her arm high to aim once more, straight down on the head that lay dazed on the table. She must smash it, it deaths mattered nothing now, only the fulfillment of this perfect ecstasy. (pp. 184-185)

Birkin은 삶의 새로운 의미는 낡을 것을 몰아내려는 마음이 몹시 간절해야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본성, 자연에 알맞은 삶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현대산업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관과 질서를 벗어나고 인간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Birkin이 보여주는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될 수 있는 한 인간이 빨리 사멸하는 것이다. 그는 Ursula와의 이야기에서 “ 난 인간인 내가 보기 싫어요.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집합체예요”라고 역설적으로 인간멸망을 소원한다. 또한 그는 인간이 내일 당장 멸망하여도 우주 실체에는 손실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간 역시 거대한 우주,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멸망 역시 자연의 일부 변경일 뿐이지 전체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Birkin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Birkin 또한 현대문명사회의 질서 아래 억눌린 자신의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돌파구로서 Ursula를 찾아낸다. 하지만 Gerald와는 달리 그는 이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Birkin은 서로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평형상태의 사랑을 추구한다. 그래서 파멸을 맞은 Gerald, Gudrun과는 달

리 Birkin과 Ursula는 자신의 본성과 자아를 찾게 된다.

처음에는 Birkin과 Ursula도 서로 다른 사랑의 개념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서로 다투고 쉽게 화해의 국면으로 가지 못한다. Birkin이 추구하는 것은 강요, 종속이 아닌 서로 평형을 이룬 별처럼 서로간의 자아를 서로간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서 인간관계의 일부분이지 목적이나 삶 그 자체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독자성을 유지한 채 조화를 이뤄야만 완전한 합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랑 그 자체만으로는 성취나 합일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Ursula가 주장하는 영·육간의 완전한 합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둘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자신들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는 새로운 자아를 완성하여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삶을 이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처음 그들은 현실 속에서 끝없는 절망을 느낀다. 이러한 절망의 근원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창조적이지 못한 현대산업사회에 기인한다. 하지만 Birkin이 프랑스를 다녀온 다음 그는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Ursula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지·수용하게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의식을 벗어 던지고 Ursula와 화해하게 된다. 서로간의 지배욕과 현대산업사회 질서를 따랐던 Gerald와 Gudrun은 파멸을 맞은 반면, Birkin과 Ursula는 진정으로 인간본성에 부합되는 합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Birkin은 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현대산업사회에 따르는 삶을 지양하려고 한다. 즉, 그동안 자신들을 억누르고 인간본성을 제압하고 있던 사회의 질서와 관념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와 관념을 거부하는 모습은 그가 의자를 샀다가 바로 젊은

에비부부에게 쥐버리는 장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18세기 양식의 의자를 본 Birkin은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본성을 억누르지 않던 사회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는 관례적으로 결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남녀에게 의자를 준다. 이것은 인간본성을 억누르는 현대산업사회의 질서에 순응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Birkin은 마지막으로 Gerald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죽음 Birkin에게 또 하나의 자연, 대우주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Birkin은 Gerald의 죽음을 맞이하여 슬픔과 상념에 빠진다. 현대산업사회의 질서 속에 생산적인 삶과 사회의 톱니바퀴 속의 삶을 충실히 살아온 Gerald의 죽음, 이것은 인간의 현대산업사회를 뛰어넘는 거대한 자연, 대우주의 법칙을 Birkin이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Birkin은 Gerald의 죽음에서 창조적 신비, 거대한 자연, 우주의 원리를 느끼게 된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질서가 있다. 여기에 인간의 현대산업사회가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자연, 인간본성, 창조적 신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의 질서에 따라 창조적 삶을 살아야 인간도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된다.

It was very consoling to Birkin, to think this. If humanity ran into a cul de sac, and expended itself, the timeless creative mystery would bring forth some other being, finer, more wonderful, some new more lovely race, to carry on the embodiment of creation. The game was never up. The mystery of creation was fathomless, infallible, inexhaustible, forever. Races came and went, species passed away, but ever new species arose, more lovely, or equally lovely, always surpassing wonder. The fountain-head was incorruptible and unsearchable. It had no limits. It could bring forth miracles, create utter new races and new species, in its own hour, new forms of

consciousness, new forms of body, new unites of being. To be man was as nothing compared to the possibilities of the creative mystery. To have one's pulse beating direct from the mystery, this was perfection, unutterable satisfaction. Human or inhuman mattered nothing. The perfect pulse throbbed with indescribable being, miraculous unborn species. (pp. 740-741)

Birkin은 현대산업사회의 허울좋은 발전논리 아래에서 저도 모르게 억제되고 있는 인간본성에 따른 삶, 현대산업사회의 질서 속에 묻혀 있는 창조적이고 자연적인 생명력을 회복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Birkin은 대자연의 질서를 인지하고 그 안에 하나의 존재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능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 IV. 공존윤리를 지향하는 사랑 추구

Lawrence는 생태학적인 관점을 인간의 사랑에도 결부시키고 있다. 그는 인간의 사랑 역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Lawrence가 이성간의 사랑에 대해 부여했던 막중한 의미를 안중에 두면서, *Women in Love*에서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와 그 표현 방식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Lawrence문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진전된 일이라 할 것이다.

Lawrence는 *Women in Love* 속에 두 쌍의 대조적인 연인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랑의 결말을 극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사랑에 대한 그의 소신을 전하고 있다. *Women in Love*에서 극히 대조적인 애정관을 보여주는 두 남자 주인공이 Gerald와 Birkin이다.

Gerald는 현대산업문명 사회에 철저히 길들여진 인물들이다. 그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질서 속에서 현대문명의 가치관과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맹종한다. 그래서 그는 자연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질서요 원리라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 채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Gerald는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그는 부유계층에서 태어나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고 자랐으며, 따라서 현대문명의 질서 안에서 가치관이 확립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인간본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자신이 지배, 정복,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광산을 개발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같이 자연까지도 자신의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Gerald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가 자연의 일원인 암말을 다루는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9장 “Coal-Dust”) Brangwen 자매가 학교에서 돌아 올 때였다. 그 때 빨간 암말(red Arab mare)을 타고 Gerald가 나타난다. 이 때 기차의 굉음에 길들여지지 않은 암말이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자 Gerald는 그의 몸으로 중압감을 줄뿐만 아니라 박차를 가함으로써 말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한다. 말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자비한 본능처럼 말의 옆구리에 박차를 가한다. 마침내 Gerald는 말의 공포를 재우게 된다.

A Sharpened look came on Gerald's face. He bit himself down on the mare like a keen edge biting home, and forced her round. She roared as she breathed, her nostrils were two wide, hot holes, her mouth was apart, her eyes frenzied. It was a repulsive sight. But he held on her unrelaxed, with an almost mechanical relentlessness, keen as a sword pressing in to her. Both man and horse were sweating with violence. Yet he seemed calm as a ray of cold sunshine. (pp. 192-193)

이것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Gerald의 욕구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기차 소리에 겁을 먹은 말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본능을 Gerald는 용납할 수가 없다. 자연의 본능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암말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Daleski에 의하면 이러한 Gerald의 자연정복적인 태도가 광산을 기계화할 때 광부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예시해준다고 평가하였으며<sup>18)</sup> 그의 이러한 공격적인 자연관은 사랑하는 이성을

18) H. M. Daleski,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London: Farber and Farber, 1965), p. 154.



보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지배욕의 대상이었던 암말이 그대로 여성의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여성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암말을 거칠게 다루면서 진정시킨 것은 이성을 자신과 평행을 그리는 파트너의 개념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Gerald의 이러한 모습에 반응을 보이는 Gudrun 역시 Gerald와 같이 자연정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Gudrun은 암말을 폭군처럼 다루고 있는 Gerald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다. 말을 단순히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Gerald의 모습이 아니라 암말, 즉 자연 위에 높이 올라타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And he was very picturesque, at least in Gudrun's eyes, sitting soft and close on the slender red mare, whose long tail flowed on the air. (p. 190)

Gudrun은 Gerald가 암말을 다루는 장면에도 Ursula와 상이하게 반응을 보인다. Ursula가 놀라 소리치는 것과는 달리 Gudrun은 오히려 Gerald와 암말의 의지 싸움의 광경에서 오히려 자기와 말을 동일시하는 피학대적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Gerald에게 자랑스럽다는 말까지 던지게 되는 것이다.

As he jerked aside the mare's head, Gudrun cried, in a strange, high voice, like a gull, or like a witch screaming out from the side of the road: 'I should think you're proud.' (p. 194)

그러나 Gudrun은 잠시 동안 몽롱한 쾌감이 지나간 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고 잠시 전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Gudrun의 이러한 태도는 자연, 이성을 지배하려는 Gerald

의 지배욕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며, 뒤에 그들이 느끼게 되는 사랑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사랑임을 보여준다. 즉,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보이는 동질감에 의한 것이지 진정한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사랑이 아님을 보여준다. Raymond Williams는 이 사건 속에 Gerald와 Gudrun의 미래가 예시되고 있다고 평한다.<sup>19)</sup>

Gerald의 자연에 대한 지배욕은 자연의 상징 중에 하나인 여성에 대한 지배욕으로 가장 잘 표출된다. 그는 현대산업사회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본성이 억눌려진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지배욕을 불태우게 된다. 그런 그의 지배욕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성에 대한 지배욕을 들 수 있다.

Gerald는 런던에서 Birkin의 소개로 예술가 일행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그 때 Pussum이란 여인을 만나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룻밤을 보낸 여인에게 떠나올 당시에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Gerald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That's What I can't make out.' said Gerald. 'Does he love her, the Pussum, or doesn't he?'. . . 'I don't know.' said Gerald, after a pause, 'that he does insult the Pussum so very much. She strikes me as being rather foul.' 'But I thought you liked her,' exclaimed Birkin. 'I always felt fond of her. I never had anything to do with her, personally, that's true.' . . . 'one thing,' he said, seating himself on the bed again. We finished up rather stormily, and I never had time to give her anything.' . . . I think I'd rather close the account,' said Gerald, repeating himself vaguely. (pp.169-170)

---

19) Raymond Williams, *Modern Traged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p. 124.

이는 단순히 Gerald의 도덕적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Gerald가 Pussume이란 여성을 돈을 통해서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이성에 대한 지배욕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udrun의 눈을 통해서도 Gerald의 여성에 대한 지배욕은 발견할 수 있다. Gudrun은 파티에서의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Ursula에게 Gerald의 지배욕에 대한 언급을 한다. Gudrun은 마치 추수를 하듯이 여자들을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말로 당시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Gudrun의 언급에서 Gerald는 파티에 있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고 싶은 소유욕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Gerald! Oh, my word, he came out like a dandelion in the sun!. He's a whole saturnalia in himself, once he is roused. I shouldn't like to say whose wast his arm did not go round. Really, Ursula, he seems to reap the women like a harvest: there wasn't one that would have resisted him. It was too amazing! Can you understand it? (p. 613)

Gudrun 역시 자연과 남성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욕망과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그녀의 의지는 14장 "Water-Party"에서 Gerald의 얼굴을 때린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자연 지배의 강한 욕구를 보이는 Gerald, 즉 강인해 보이는 이성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Gudrun은 Gerald의 뺨을 때리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녀의 자연에 대한 지배욕구는 Gerald의 뺨을 때리기 전 황소들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자연의 일부인 황소를 향해서 달려간다. 황소의 모습에 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춤을 추면서 황소들에게 접근을 하여 황소들을 도망치게 만든다. 이것은 그녀가 자연에 대한 지배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이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자연지배적, 폭력적 성향에 있어서 동질성을 갖는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닌 현대산업사회의 질서 속에서 생겨난 가치관에 의해 둘이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Gerald와 Gudrun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배욕 등의 성격적 유사성에 의해 서로 이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둘의 태도는 두 사람의 사이에 정복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복관계를 추구하며 남성을 지배하고자하는 Gudrun의 모습은 뺨을 때린 후 Gerald와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황소의 위험성을 이야기 해주는 Gerald에게 자신이 Gerald의 황소와 Gerald 본인에게 두려움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Gerald의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Anyway, they gored one of the farmer's cows to death, the other day,' he said. 'What do I care?' she said. ... 'you can have one if you'd like it sent to you later on.' She looked at him inscrutably. 'you think I'm afraid of yo and your cattle, don't you?' she asked. (pp. 278-279)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창조적 의지가 결여된 모습은 Gerald 뿐만 아니라 Gudrun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Gerald와 Gudrun이 이루는 연인의 관계는 Gerald가 내면적 공허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파국을 막지 못하고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Gerald는 의지와 무슨 일에선 집착하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그 자신보다 더욱 강한 여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것이며, 그의 사랑은 그를 인간 본성에 충실한 창조적 존재의 삶으로 이끄는 대신 그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20)</sup> 라고 Schorer는 지적하고 있다.

결국 별의 평형과 같이 서로 독자적인 존재이면서도 상호보완이 되는 Birkin과 Ursula의 관계와 달리 Gerald와 Gudrun의 관계는 그 부정적인 특질에 의해 단순 쾌락과 탐닉의 차원으로 비하되어 창조적인 완성 없이 쓰러진다. 즉, 자연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대산업문명의 틀 속에 살아온 Gerald와 Gudrun은 인간 본성의 회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 속에서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Lawrence는 이 두 연인의 파멸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는 삶, 그리고 그러한 속에 각자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산업사회의 체제에 맞춰진 연인의 파멸과 달리 Birkin과 Ursula는 자연의 질서에 알맞은 창조적인 사랑의 길로 향하고 있다. Birkin에게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서 인간 본성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이었다. 그리고 사랑은 인간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일이었다. 따라서 사랑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사회적 의미의 의무가 뒤따르고 서로를 구속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Gerald와 Gudrun이 현대산업사회의 반자연적 경향에 의해 파멸로 치닫는 관계라면 Birkin과 Ursula는 그러한 반자연적 해체경향을 벗어나 인간본성에 적합한 창조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존재의 개념에 얽매인 Gerald와 Gudrun의 파멸과 달리 Birkin과 Ursula는 정신적으로, 인간본성에 적합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게 됨으로서 사회적 존재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Birkin을 통해 이야기되는 Lawrence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

20) Mark Schorer, *Women in Love, The Achievement of D. H. Lawrence*, ed. Fredrick Hoffma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3), p. 173.

The free characters are limited to four, the four who actively seek out their fate through the plot movement. . . . But the free characters, the four, are compounded of a double drive, and it is here that the method of characterization is new and unfamiliar. They have their social existence and they have their psychic existence; the first is inevitably an expression of the second, but in the second lies their whole motivation. As two take the way of death, their social role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as the two others take the way of life, their social role becomes less important, ceases, in fact, to exist.<sup>21)</sup>

Birkin은 Lawrence가 “The Crown”에서 남녀관계를 ‘별의 평형 관계’로 비유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남녀가 만나도 각각의 독자적인 존재를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이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 이외에, 현대문명 속에서 남녀가 서로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에 벗어난 현대산업사회의 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한다.

He believed in sex marriage. But beyond this, he wanted a further conjunction, where man had being and woman had being, two pure beings, each constituting the freedom of the other, balancing each other like two poles of one force, like two angels, or two demons. (p. 323)

따라서 Birkin은 철저히 이성에 대한 지배욕을 부정한다. 그의 이성에 대한 극단적인 지배욕 부정은 그가 프랑스에서 몰래 돌아왔다가 우연히

---

21) Mark Schorer, "Women in Love and Death," *D. 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3), P. 56.

Willy Water 호숫가에서 Ursula를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때 Birkin은 호수에 비친 달빛에 돌을 던지고 있었다. 달은 여성을 상징한다. 즉, Birkin은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인 소유욕을 거부하는 것이다.

The effectiveness of the scene is increased if we realize that the moon has a symbolic value for Ursula as well as for Birkin, and that she in some measure intuitively comprehends the meaning of the stoning. The moon that is reflected in the pond is the moon that shone devastatingly on Skrebensky, the moon that is the planet of the self-assertive, sensual, devouring woman.<sup>22)</sup>

하지만 이러한 그의 사랑에 대한 생각 때문에 Ursula와 많은 언쟁을 벌이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옛날 방식의 사랑은 군대 징집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심지어 결혼제도까지도 인간 스스로 본성을 잃어가는 구속의 한가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Birkin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구속한다는 생각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용조차도 거부한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부정한 Birkin에게 있어서 현실은 삶을 유지할 가치가 없는 장소이었다. 이때 이러한 Birkin을 death-wish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Ursula이다. 둘 사이에서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창조적 관계가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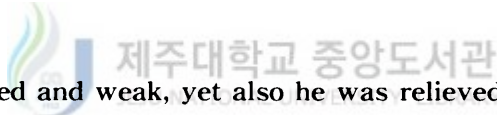
물론 처음에 Ursula가 주장하는 영·육 합일의 사랑을 Birkin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연의 한 요소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의식이

---

22) Daleski, p. 167.

또한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현대산업사회의 제도에 얽매어 가기보다 창조적인 삶을 모색하는 상호신뢰의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Birkin과 Ursula도 이런 창조적인 과정으로 발전하기 전, 한 때 Ursula가 사랑의 징표로 받은 반지를 던져버리고 가는 심각한 상황까지 맞이한다. 하지만 Birkin이 프랑스에 다녀온 후 결국 Birkin은 자신이 Ursula에게 자신의 생각만을 받아들여기를 강조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창조적인 삶을 모색하는데 방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Ursula 또한 자신이 사랑 자체만의 합일을 요구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인간본성에 부합되는 창조적인 합일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소였음을 깨닫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He felt tired and weak, yet also he was relieved. He gave up old position. . . . No doubt Ursula was right. It was true, really, what she said. He knew that his spirituality was concomitant of a process of depravity, a sort of pleasure in self destruction. There really was a certain stimulant in self destruction, for him—especially when it was translated spiritually. . . . And was not Ursula's way of emotional intimacy, emotional and physical, was it not just as dangerous as Hermione's abstract spiritual intimacy? ... Hermione saw herself as the perfect idea, to which all men must come: and Ursula was the perfect Womb, the bath of birth, to which all men must come! And both were horrible. ... Why not leave the other being free, Why try to absorb, or melt, or merge? (p. 485)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Birkin은 그 동안 자신의 인간본성, 자아를 억압해오던 것이 자신의 의식이었음을 알게 된다. 즉, Birkin 자신이 원했던



것은, 지성적 속성을 나타내는 the perfect Idea와 감성적 속성을 나타내는 the perfect Womb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속박해온 편중된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난 Birkin은 자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돌아온 Ursula와 대자연 속에서 자아중심적인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장벽을 넘어 완전한 합일을 이룬다.

이 둘은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명사회의 틀을 벗어남으로서 자신의 인간적 본성에 충실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각자가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면서 또한 인간성 파괴적인 현대산업사회의 제도와 자기 현시적인 사랑의 이름아래 행하여지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인간 본성의 회복과 동시에 자기 실현적인 애정의 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그것이 또한 인간의 본성에 알맞은 삶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 V. 결 론

Lawrence는 문학작품의 기교적 측면이나 예술성보다 인간의 본래적인 삶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였다. 그는 예술이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가 전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의 역작 중 하나인 *Women in Love*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Lawrence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던 인류 문명이 전쟁과 살육이라는 중대위기에 처해있는 시대였다. Lawrence는 자신의 사회·문화가 처한 위기에 대해 남다른 민감성으로 반응하였고 현대 산업사회의 지배논리가 인류역사의 종말을 예고한다고 보았다. 인류문명의 자기파괴적 원리가 결국은 지구상의 생태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그의 문학의 메시지는 오늘날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생태주의 사상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집필동기였다. 그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생태학적인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다. Lawrence는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억압되고 있고 모든 생명들의 본래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바로 *Women in Love*라고 할 수 있다.

Lawrence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는 자아에 충실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삶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할 때 가장 자연에 부합되는 삶이고 그러한 삶

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문명사회의 특징인 기계적·자동적인 속성은 자아와 인간 본성을 충족시키는 욕망과 충동을 억압한다. 즉 현대문명사회의 속성이 인간의 본성들에 부합하는 일체의 것들을 수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산업문명의 제도들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awrence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제도들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wrence가 경고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명이란 틀에 얽매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삶이 유형화되고 정형화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획일화된 가치체제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Women in Love*의 배경으로 나오는 탄광지 Beldover는 Lawrence가 우려하는 현대산업사회의 생태질서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Lawrence가 갖고 있는 생태주의적 문명비판의 시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2장에서는 광산사업가 Gerald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았다. 그는 현대산업문명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연과 여성을 자신의 지배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본다. 그는 자연을 정복하고 산업화 시켜서 생산적이고 기계적인 현대문명의 틀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는 현대산업문명의 제도에만 충실하고 자신의 본능을 억누른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광산의 기계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현대산업사회의 측면에서 성공은 자아의 부재를 가져왔고 이러한 공허 상태를 채우기 위해 그는 자연을 지배, 정복, 착취하는 자기 사업에 치열한 욕망을 불태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지배욕은 더욱 자연 본연의 모습과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모습이었으므로 그를 더욱 견딜 수 없는 불안상태로

물고 가게 된다. 이러한 그의 삶은 결국 자기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 그것은 현대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사업거장(industrial magnate)의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3장에서는 Birkin의 눈을 통하여 현대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단과 부정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Lawrence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Birkin은 현대산업사회의 질서가 인간의 본능, 관능적인 면을 억누름으로써 더 이상 자연의 일부로서 교감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Birkin은 현대산업사회의 자기파괴적 지배논리를 거부함으로써 인간본성에 충실한 자아를 추구한다. 즉, Birkin은 현대문명이 진보라는 미명아래 만들어 놓은 갖가지 제도와 관행들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창조적인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억압과 구속을 벗어나야 진정 가치 있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이러한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끝내 현대문명의 틀 속에 갇혀 파멸을 맞이하는 Gerald-Gudrun 커플과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며 서로가 독자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결국 창조적인 삶을 찾아내는 Birkin-Ursula 커플이 벌이는 애정행로의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남녀간의 애정문제가 결국은 생태주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Gerald와 Gudrun은 서로에 대한 지배욕과 현대산업사회의 상호파괴적 투쟁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강한 지배욕구와 공격적 성격에 끌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논리는 타자를 자신의 공격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자연의 질서와 인간본성에 어긋나는 요소들이다. Gerald와 Gudrun은 결국 창조적이고 자연본래적인 사랑을 획득하지 못하고 Gerald의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Birkin과 Ursula는 처음에는 서로 많은 언쟁을 벌이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던 욕구를 포함하여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제도와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난다. 자연의 질서와 인간 본성에 충실을 기하는 진정한 사랑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Birkin과 Ursula는, 결국 인간 본성에 합치되는 사랑이란 지성과 감성의 조화임을 깨닫고 공존의 질서에 따르는 사랑과 삶의 단계로 진일보하게 된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Women in Love*가 시대적인 현실문제에 대한 절망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Birkin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주의 질서를 깨닫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Lawrence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Gerald의 죽음을 통하여 우주의 자연적 질서를 깨닫고 그러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그 안에서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Birkin-Ursula의 자기 성찰과정을 통하여 현대산업사회의 경쟁원리와 생명파괴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자아의 생명원리와 대자연의 생태질서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삶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음은, 이 작품의 구조가 부정적인 현실거부에만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하겠다.

*Women in Love*에 등장하는 대조적인 성격의 두 남자 주인공은 본래적인 생명의 질서에 역행하는 현대산업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면의 진실에 충실한 삶의 길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irkin이 보여주는 고뇌에 찬 삶의 모색과정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러한 정립된 진실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삶, 즉 우리의 본성이 살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생태질서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철학을 Lawrence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산업 사회

의 자연정복주의, 능률제일주의로서는 환경오염, 자연파괴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생태주의는 결국 삶의 근본적인 의의와 존재불안의 문제로 귀결된다. Lawrence는 환경개선 차원보다 더욱 근원적인 곳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큰 자연의 질서와 그 속에서 영위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표출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Text :

Lawrence, D. H. *'Women in Love'*. with Essays in criticism. 서울: 신아사, 1982

### II. Secondary Sources

Burns, Aidan. *Nature and Culture in D. H. Lawrence*. Totowa: Barnes & Noble Books, 1980.

Daleski, H. M.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London: Farber and Farber, 1965.

Freeman, Mary. *D. H. Lawrence: A Basic Study of His Ideas*. New York: Grosset & Dunlap, 1955.

Holderness, Graham. *D. H. Lawrence: History, Ideology and Fiction*. Dublin: Gill & Macmillan Humanities Press, 1982.

Lawrence, D. H. "Democracy".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A.H. *English*.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_\_\_\_\_. "Morality and the Novel".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A.H. *English*.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_\_\_\_\_. "Foreword to *Women in Love*". *D. H. Lawrence: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Ed. Colin Clark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8.

Leavis, F. R. *D. H. Lawrence: Novelis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1.

- Miko, Stephen. J. *Toward Women in Love: The Emergence of a  
Lawrentian Aesthet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 Moynahan, Julian. *The Deed of Life: The Novels and Tales of D. H.  
Law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Pritchard, R. E. *D. H. Lawrence: Body of Darknes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1971.
- Rachman, Shalom. "Art and Value in D. H. Lawrence's *Women in  
Love*". *D. H. Lawrence's Women in Love with Essays in  
Criticism*, 서울 : 신아사, 1982.
- Sagar, Keith. *The Art of D. H. Law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Schorer, Mark. "*Women in Love*". *The Achievement of D. H. Lawrence*.  
Ed. Fredrick Hoffma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3.
- Schorer, Mark. "*Women in Love and Death*". *D. 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a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3.
- Williams, Raymond. *Modern Traged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서울: 민음사, 1998.
- 양영수.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7.



<Abstract>

## Ecological Reading of *Women in Love*

Cho, Min-Si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Yang, Young-Soo

Lawrence writes novels not for the sake of art but for humanity or oneself. Most of his works are not precious in respect of the art but his works show us the right way of living. In *Women in Love*, we can find that he criticize modern-industry society. He insists that we recover human life and human nature which correspond with natural order.

In *Women in Love*, Gerald represents modern-industry society which acts contrary to nature. He follows the modern-industry society, because modern-industry society is the background of his growth. So he always prevent his nature from arising and lives in a way of mechanical and productive life. Because of these things, he feels fear and hollow in spite of success in coalmining. He tries to govern nature more and more in order to settle his fears and hollow. In other words, as he tries to govern nature more and more, he goes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nature. Finally, he can't find his own identity and he dies. His death is a tragedy of modern-industry society which is contradictory to natur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Birkin, who is in contrast with Gerald, knows that modern-industry society downpress the human nature. He insists that we live a life on human nature and recover our humanity. He says that we must live a natural life in order to make human nature thrive. We must deny the systematic approaches and our sense of value towards the modern-industry society, because it prevent us from accepting human nature. Finally, he doesn't accept modern-industry society; instead, he follows human nature, so he can live a creative and precious life which correspond with human nature.

One of the main topics in Lawrence's novel is love. There are two couples in *Women in Love*. First, Gudrun and Gerald love each other, but they are very possessive with each other. They love each other not because of human nature, but because of their desire to control nature. As a result, they are destroyed. Second, Birkin and Ursula recognize each other's identity. In addition, they refuse to accept the organization and the systematic nature of modern-industry society. They accept human nature and fall in love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human nature. As a result of it, they can make a creative life.

We can comprehend Lawrence's intention in terms of ecological view. His works don't aim to make environmental elements better but rather say to the public aspect of natural sensation and human nature. Lawrence says that a life which corresponds with human nature is a natural life, and we must live such a natural life in order to make our life high more creative.